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404-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6 범죄인식조사] 범죄 현황 및 심각성 인식

2026. 11. 4.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범죄 발생 수준에 대한 인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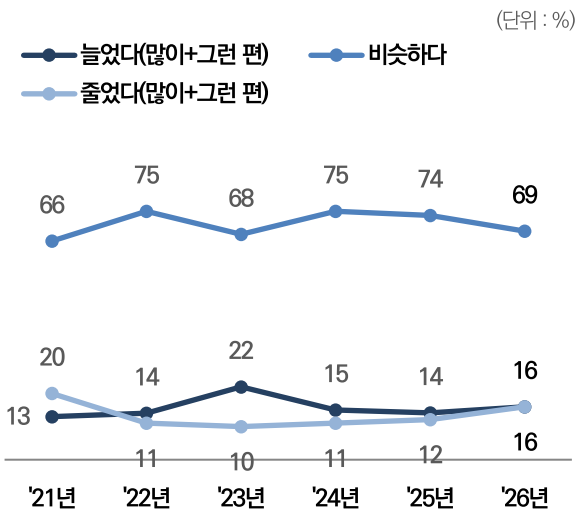
내가 사는 지역 범죄는 '1년 전과 비슷하다' 69%로 다수
우리나라 범죄 '1년 전보다 늘었다' 50%, 지난해 60%에서 10%포인트 하락

사람들이 체감하는 지역 및 전국 단위의 범죄 수준을 확인해 보았다.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9%가 '1년 전과 비슷하다'고 평가한다. 범죄가 늘었다는 응답과 줄었다는 응답은 각각 16%로 같다. 거주 지역의 범죄 발생이 직전 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2021년 이후 매년 66~75% 수준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예년보다 줄었다는 인식이 2023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2023년 10% → 2026년 16%).

우리나라의 범죄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늘었다'는 인식이 다수이지만, 그 비율은 하락했다. 1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 범죄가 늘었다는 응답은 50%로, 지난해(60%)보다 10%포인트 하락해 2022년(4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년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40%이며, 줄었다는 응답은 11%로 2021년(13%) 이후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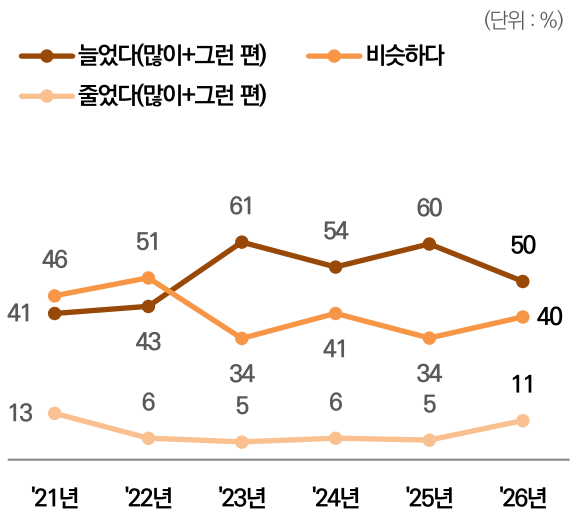
우리나라 범죄가 1년 전보다 늘었다는 인식은 이념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보수층에서는 61%가 늘었다고 답한 반면 진보층은 32%가 늘었다고 답해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에서는 73%가 우리나라의 범죄 증가를 체감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은 26%만 우리나라 범죄가 1년 전보다 늘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성향,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인식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내가 사는 지역 범죄 발생, '1년 전과 비슷하다' 69%
2021년 이후 60~70%대 유지



질문: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가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범죄 발생, '1년 전보다 늘었다' 50%
지난해보다 10%포인트 하락



질문: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범죄가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연 1회 조사. 올해 조사 기간은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보수층의 61%, 대구/경북 거주자의 68%가 우리나라 범죄 '1년 전보다 늘었다'
진보층은 32%, 전남광주/전북 거주자는 40%가 우리나라 범죄 '1년 전보다 늘었다' 인식차이 있어

(단위 : %)

	사례수 (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및 우리나라 범죄 발생 수준 비교					
		1년 전 대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범죄 발생 추세			1년 전 대비 우리나라 범죄 발생 추세		
		늘었다 (많이+그런 편)	비슷하다	줄었다 (많이+그런 편)	늘었다 (많이+그런 편)	비슷하다	줄었다 (많이+그런 편)
전체	(1,000)	16	69	16	50	40	11
성별							
남자	(494)	16	66	17	46	42	12
여자	(506)	15	71	14	54	37	9
연령별							
18-29세	(147)	18	73	10	49	39	12
30대	(151)	21	68	11	63	32	5
40대	(168)	14	71	15	44	42	13
50대	(192)	13	66	21	42	45	13
60대	(180)	13	68	18	47	45	9
70세 이상	(162)	16	67	17	57	31	12
거주지역							
서울	(186)	17	69	14	50	41	9
인천/경기	(325)	15	67	18	47	41	11
대전/세종/충청	(108)	15	71	14	48	42	11
전남광주/전북	(96)	11	69	20	40	44	16
대구/경북	(97)	18	72	9	68	27	5
부산/울산/경남	(147)	17	66	17	50	37	13
강원/제주	(41)	11	77	12	53	39	7
주관적 이념성향							
진보층	(278)	6	65	29	32	48	20
중도층	(355)	18	69	13	51	42	8
보수층	(330)	21	72	7	61	32	7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412)	4	64	31	26	52	22
못하고 있다	(480)	28	69	3	73	25	2
모르겠다	(107)	5	83	12	39	55	6

질문: (지역 범죄 발생 추세 인식)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가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범죄 발생 추세 인식)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범죄가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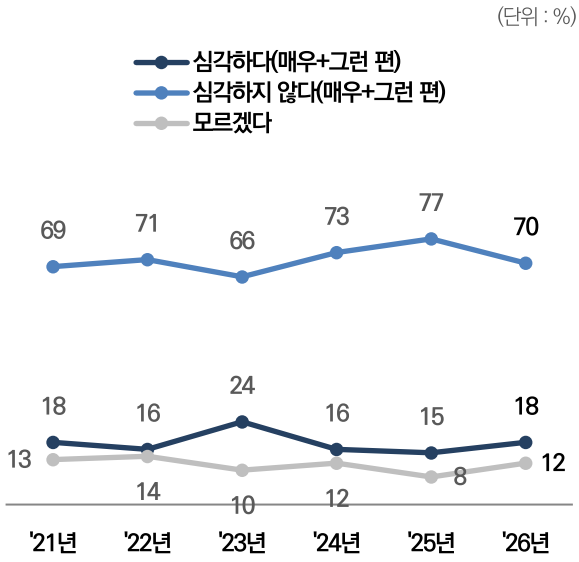
지역 범죄 문제 '심각하다' 18%, 우리나라 범죄 문제 '심각하다' 69%
전국은 심각하고 내가 사는 동네는 괜찮다는 인식 6년째 유지

거주 지역의 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70%가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심각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친다. 심각하다는 응답은 2021년 이후 매년 15~24% 수준에 머물러 왔다. 다만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지난해(77%)보다 7%포인트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범죄 상황에 대한 평가는 이와 대조적이다. 69%가 우리나라의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27%)의 두 배를 웃돈다. 지난해(72%)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가 사는 지역의 범죄 문제보다 우리나라의 범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 인식은 2021년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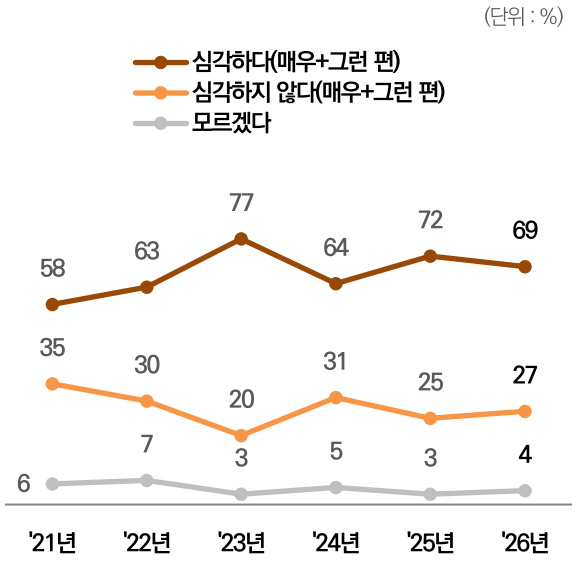
내가 사는 지역의 범죄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도 62%는 우리나라 범죄는 심각하다고 평가한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범죄가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자 중 내가 사는 지역의 범죄도 심각하다는 응답은 24%에 그친다.

내가 사는 지역 범죄, 심각하지 않다 70%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이 2021년 이후 다수



질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리나라의 범죄, 심각하다 69%
지역 범죄와는 달리, 심각하다는 의견이 다수 차지



질문: 대한민국의 범죄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연 1회 조사. 올해 조사 기간은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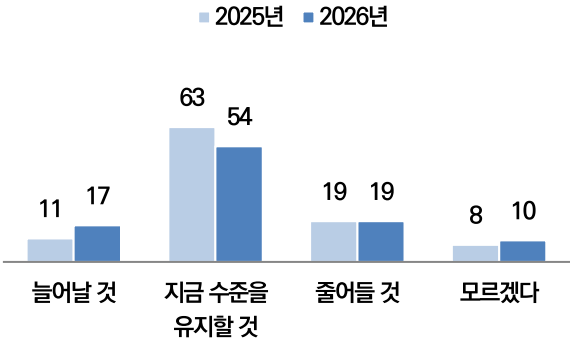
내가 사는 지역 범죄 '늘어날 것' 17%로 증가, '지금 수준 유지'는 63%→54%로 줄어
앞으로 우리나라 범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50%… 지난해 대비 6%포인트 상승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이 늘었다고 체감하는 사람은 줄었지만, 향후 전망은 오히려 어두워졌다. 지역 범죄가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54%로 여전히 다수지만 지난해(63%)보다 9%포인트 줄었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11%에서 17%로 높아져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19%)과 비슷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범죄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은 50%로 지난해(44%)보다 6%포인트 높아져 절반에 이른다.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37%에서 31%로 낮아졌다. '지난 1년은 범죄가 덜 늘었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향후 거주 지역의 범죄 수준, '지금과 비슷' 54%
'늘어날 것' 17%로 지난해보다 6%포인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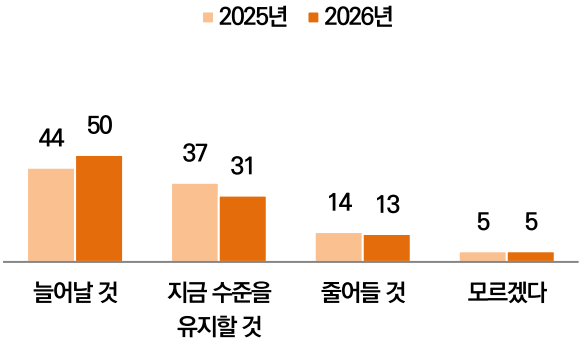
(단위 : %)



질문: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 문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범죄, '늘어날 것' 50%
지난해보다 6%포인트 상승

(단위 : %)



질문: 앞으로 대한민국의 범죄 문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5. 7. 25 ~ 29. //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거주 지역 범죄 문제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은 성별·세대와 관계없이 과반
정부 범죄 정책 부정평가층은 30%가 '앞으로 지역 범죄 늘어날 것'… 긍정평가층은 3%

(단위 : %)

	사례수 (명)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 문제 심각성 및 향후 전망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 문제 심각성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향후 범죄 수준 전망			
		심각하다 (매우+그런 편)	심각하지 않다 (전혀+그런 편)	모르겠다	늘어날 것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	줄어들 것	모르겠다
전체	(1,000)	18	70	12	17	54	19	10
성별								
남자	(494)	17	72	12	19	50	21	10
여자	(506)	19	69	13	14	58	17	10
연령별								
18-29세	(147)	19	67	14	19	56	11	15
30대	(151)	24	58	18	25	47	9	18
40대	(168)	17	73	10	15	56	21	9
50대	(192)	15	73	13	13	55	23	9
60대	(180)	17	74	10	16	55	26	3
70세 이상	(162)	16	74	10	13	58	22	7
성별 x 연령								
18-29세 남성	(75)	18	66	16	23	50	13	14
18-29세 여성	(72)	20	69	11	14	62	9	16
30대 남성	(79)	18	63	19	25	42	10	23
30대 여성	(72)	31	52	17	26	53	8	13
40대 남성	(86)	15	74	11	17	47	28	8
40대 여성	(82)	19	73	8	13	65	13	9
50대 남성	(97)	14	75	10	15	54	23	8
50대 여성	(95)	15	70	16	12	55	22	11
60대 남성	(88)	17	76	7	17	51	31	1
60대 여성	(92)	17	71	12	15	59	21	5
70세 이상 남성	(69)	18	74	8	18	59	18	5
70세 이상 여성	(93)	15	73	12	9	58	25	8
주관적 이념성향								
진보층	(278)	9	80	11	6	51	34	9
중도층	(355)	21	66	14	18	57	14	10
보수층	(330)	22	66	12	24	53	13	9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412)	7	85	8	3	56	36	5
못하고 있다	(480)	29	60	11	30	53	7	10
모르겠다	(107)	8	60	32	8	54	9	29
우리나라 범죄 문제 인식								
심각하다	(689)	24	63	13	23	53	15	10
심각하지 않다	(266)	4	92	4	4	61	32	4
모르겠다	(45)	0	49	51	3	44	12	41

질문: (내가 사는 지역의 범죄 문제 심각성)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향후 범죄 수준 전망)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 문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여성은 76%가 우리나라 범죄 문제 심각… 특히 18-29세·30대 여성은 80% 이상이 '심각'
우리나라 범죄 '앞으로 늘어날 것' 전망은 보수층 65%, 진보층 32%로 이념 성향별 차이 뚜렷

(단위 : %)

	사례수 (명)	우리나라의 범죄 문제 심각성 및 향후 전망						
		우리나라의 범죄 문제 심각성			우리나라의 향후 범죄 수준 전망			
		심각하다 (매우+그런 편)	심각하지 않다 (전혀+그런 편)	모르겠다	늘어날 것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	줄어들 것	모르겠다
전체	(1,000)	69	27	4	50	31	13	5
성별								
남자	(494)	61	34	5	47	33	16	4
여자	(506)	76	19	4	53	30	11	7
연령별								
18-29세	(147)	67	26	6	56	26	10	8
30대	(151)	76	19	5	58	21	7	13
40대	(168)	64	31	5	48	34	15	3
50대	(192)	65	31	3	38	42	15	5
60대	(180)	67	30	3	48	31	18	3
70세 이상	(162)	75	20	5	54	31	13	2
성별 x 연령								
18-29세 남성	(75)	55	36	9	54	27	11	8
18-29세 여성	(72)	80	16	3	58	25	8	8
30대 남성	(79)	65	27	7	56	24	9	11
30대 여성	(72)	88	10	3	61	18	5	15
40대 남성	(86)	57	41	2	43	34	19	3
40대 여성	(82)	72	20	8	53	34	11	2
50대 남성	(97)	64	34	2	32	51	16	1
50대 여성	(95)	66	29	5	44	33	14	9
60대 남성	(88)	57	39	3	45	32	22	1
60대 여성	(92)	76	22	2	52	30	14	4
70세 이상 남성	(69)	68	28	4	57	25	16	1
70세 이상 여성	(93)	80	14	5	52	35	10	3
주관적 이념성향								
진보층	(278)	59	38	4	32	39	24	5
중도층	(355)	71	23	7	49	32	11	7
보수층	(330)	75	23	3	65	26	7	2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412)	51	46	3	26	45	25	4
못하고 있다	(480)	86	12	2	73	20	4	4
모르겠다	(107)	61	19	20	40	31	11	19
지역 범죄 문제 인식								
심각하다	(177)	95	5	0	76	17	6	2
심각하지 않다	(701)	62	35	3	44	37	15	4
모르겠다	(122)	73	8	19	46	19	13	21

질문: (우리나라의 범죄 문제 심각성) 대한민국의 범죄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리나라의 향후 범죄 수준 전망) 앞으로 대한민국의 범죄 문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내가 사는 지역 범죄, '현재 심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 수준 유지' 45%
우리나라 범죄, '현재 심각하며 앞으로 더 늘 것' 45%로 가장 많아

현재 평가와 미래 전망을 교차해 보면, 거주 지역과 전국 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는 '현재 심각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현재 수준 유지'가 45%로 가장 많지만 지난해(54%) 대비 9%포인트 감소해 절반을 밑돈다. '현재 심각하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10%로 소수이지만, 지난해(5%)의 두 배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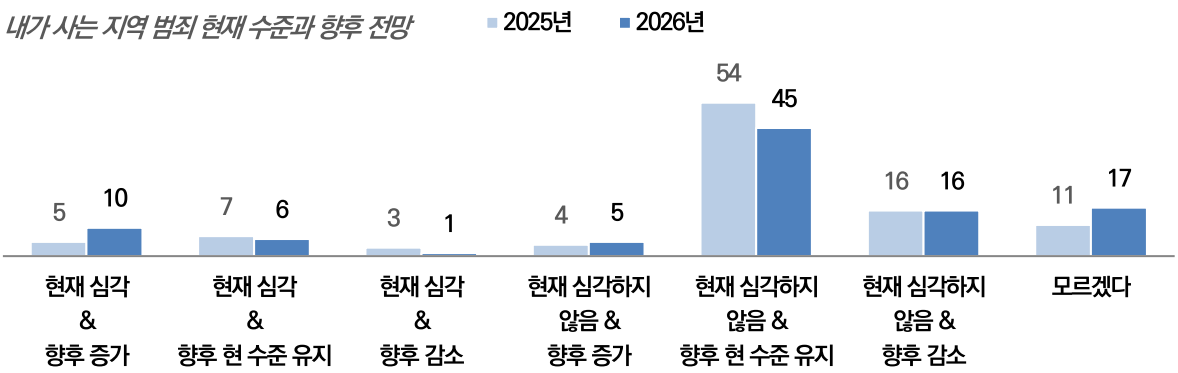
반면 우리나라 범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5%가 '현재 심각하며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답해 가장 많으며, '현재 심각하며 앞으로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16%로 뒤를 잇는다. '현재 심각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하는 사람은 14%이다.

비관적 전망은 정부에 대한 평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현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에서는 69%가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해 '현재 심각하며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20%만 그렇게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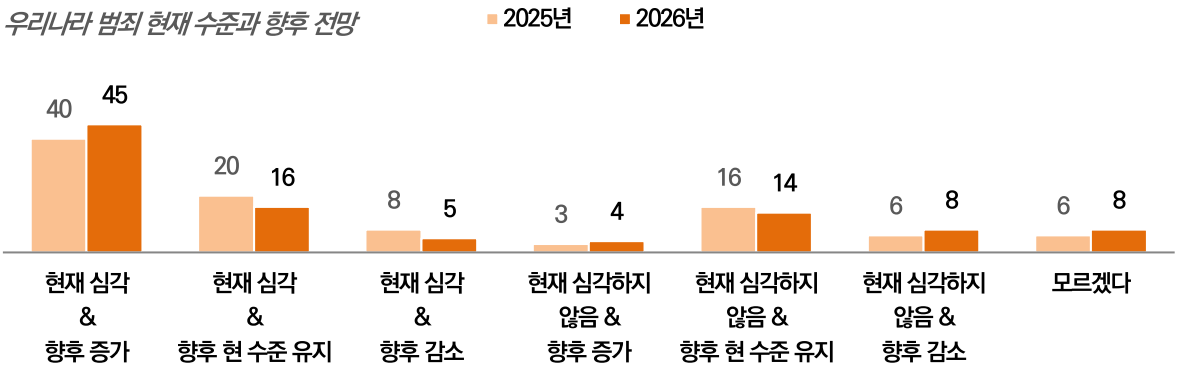
내가 사는 지역 범죄, '현재 심각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 수준 유지' 45%
우리나라 범죄, '현재 심각하며 앞으로 더 늘 것' 45%로 가장 많아

(단위 : %)

내가 사는 지역 범죄 현재 수준과 향후 전망



우리나라 범죄 현재 수준과 향후 전망



질문: (지역 범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 문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범죄) 대한민국의 범죄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앞으로 대한민국의 범죄 문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5. 7. 25 ~ 29. //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정부 범죄 정책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 69%, '우리나라 범죄 현재 심각하고 앞으로 늘 것'
18-29세·30대 여성도 절반 이상이 같은 전망

(단위 : %)

	사례수 (명)	현재 심각 & 향후 증가		현재 심각 & 향후 현 수준 유지		현재 심각 & 향후 감소		현재 심각하지 않음 & 향후 증가		현재 심각하지 않음 & 향후 현 수준 유지		현재 심각하지 않음 & 향후 감소		모르겠다	
		지역 범죄	우리 나라 범죄	지역 범죄	우리 나라 범죄	지역 범죄	우리 나라 범죄	지역 범죄	우리 나라 범죄	지역 범죄	우리 나라 범죄	지역 범죄	우리 나라 범죄	지역 범죄	우리 나라 범죄
전체	(1,000)	10	45	6	16	1	5	5	4	45	14	16	8	17	8
성별															
남자	(494)	11	40	4	15	1	5	6	6	43	17	19	11	16	7
여자	(506)	9	50	7	17	1	5	4	2	47	12	14	5	18	10
연령별															
18-29세	(147)	10	48	6	11	2	3	7	7	46	12	8	6	22	13
30대	(151)	17	51	4	13	1	2	6	5	39	8	6	6	26	14
40대	(168)	9	42	6	16	1	5	5	5	46	17	18	9	14	7
50대	(192)	9	36	3	20	2	7	3	2	48	21	19	8	16	6
60대	(180)	8	45	8	14	1	6	5	2	43	16	23	11	12	5
70세 이상	(162)	7	49	8	18	1	6	5	4	46	10	20	5	13	6
성별 x 연령															
18-29세 남성	(75)	14	40	2	9	2	2	8	12	40	14	10	10	24	14
18-29세 여성	(72)	7	57	10	14	2	4	6	1	51	10	6	3	20	11
30대 남성	(79)	16	45	1	15	0	0	6	9	40	9	8	9	30	13
30대 여성	(72)	18	58	8	11	1	4	6	2	39	7	4	1	23	16
40대 남성	(86)	8	36	6	12	1	6	8	7	39	22	25	12	13	4
40대 여성	(82)	11	48	7	20	0	4	2	2	54	12	12	5	14	9
50대 남성	(97)	10	31	2	26	2	7	3	1	49	24	20	8	13	2
50대 여성	(95)	8	41	4	14	2	6	3	2	46	18	18	8	20	11
60대 남성	(88)	10	40	6	10	1	7	6	3	40	21	30	14	7	5
60대 여성	(92)	6	50	9	18	1	5	5	1	45	12	17	9	16	5
70세 이상 남성	(69)	9	48	9	13	0	5	7	7	48	11	16	10	10	5
70세 이상 여성	(93)	5	50	7	22	2	7	4	3	44	10	22	2	16	7
주관적 이념성향															
진보층	(278)	3	27	4	19	1	9	2	5	44	18	31	15	14	8
중도층	(355)	12	45	7	16	1	5	6	2	46	15	10	5	19	12
보수층	(330)	14	58	6	13	1	2	8	6	43	12	11	5	16	4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412)	1	20	4	19	1	9	1	5	49	25	32	15	10	6
못하고 있다	(480)	19	69	8	13	1	2	9	3	41	6	5	2	17	5
모르겠다	(107)	1	34	2	14	1	4	5	2	43	10	4	5	43	31

질문: (지역 범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 문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범죄) 대한민국의 범죄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앞으로 대한민국의 범죄 문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범죄 유형별 심각성 평가

지능범죄 84%, 마약범죄 82%, 교통범죄 80% '심각하다'
강력범죄 심각하다는 인식은 71%로 지난해(78%)보다 낮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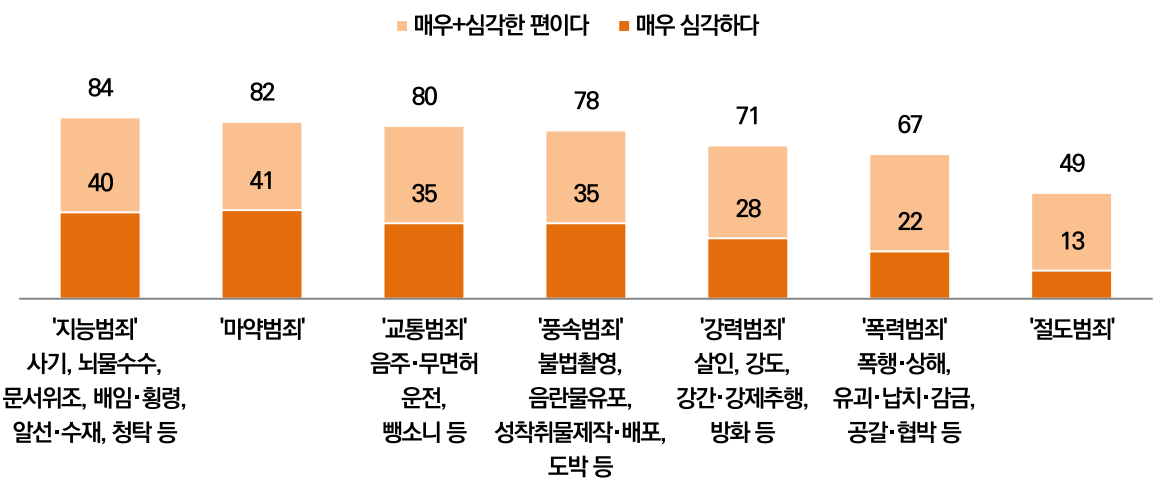
일곱 가지 주요 범죄 유형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들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제시한 주요 범죄로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절도범죄, 폭력범죄(폭행·상해, 유괴·납치·감금, 공갈·협박), 지능범죄(사기, 뇌물수수, 문서위조, 배임·횡령, 알선·수재, 청탁), 풍속범죄(불법촬영, 음란물유포, 성착취물제작·배포, 도박), 마약범죄, 교통범죄(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이다.

조사 결과, 지능범죄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4%로 가장 높고 마약범죄(82%), 교통범죄(80%), 풍속범죄(78%)가 뒤를 잇는다. 이들 범죄는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35~41%에 달한다. 강력범죄(71%)와 폭력범죄(67%)도 다수가 심각하다고 보며, 절도범죄는 49%로 가장 낮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범죄 유형에서 심각하다는 응답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했다. 강력범죄만 심각하다는 인식이 78%에서 71%로 7%포인트 낮아져 감소폭이 다른 범죄 대비 크다.

지능범죄 84%, 마약범죄 82%, 교통범죄 80% '심각하다'

(단위 : %)



질문: 발생 빈도, 피해 정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다음 각각의 범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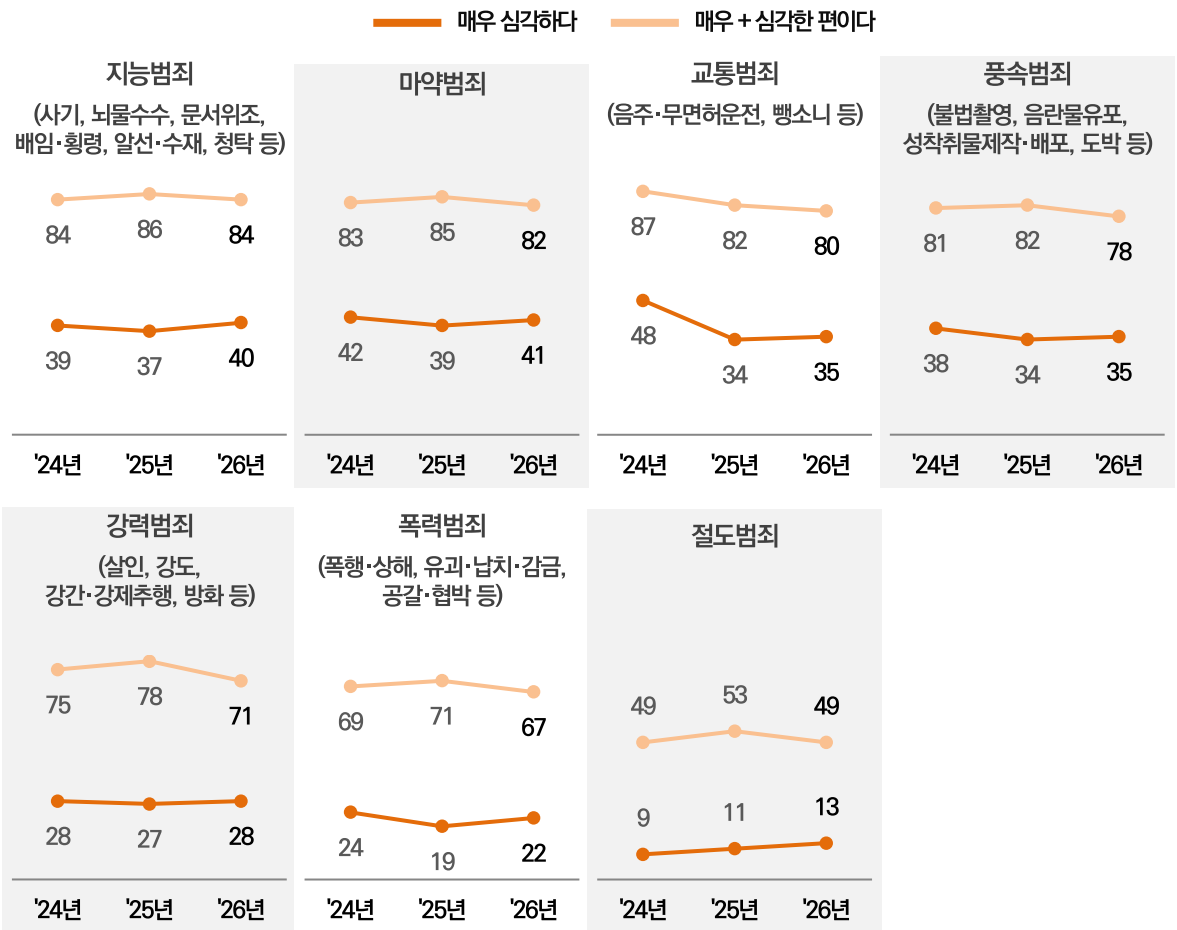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범죄 유형별 심각성 인식, 3년간 큰 변화 없는 가운데 강력범죄 심각하다는 인식은 지난해 대비 7%포인트 하락

(단위 : %)



질문: 발생 빈도, 피해 정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다음 각각의 범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7. 26 ~ 29 // 2025. 7. 25 ~ 29. //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여성은 남성보다 대부분의 범죄 유형에서 매우 심각 혹은 심각한 편이라는 인식이 높으며, 그 격차는 강력범죄(여성 81%, 남성 61%), 풍속범죄(88%, 69%), 폭력범죄(75%, 58%)에서 크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젊은 세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강력범죄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18-29세 여성이 82%로 같은 연령 남성(41%)의 두 배이며 30대에서도 여성은 90%, 남성은 56%로 큰 차이를 보인다. 풍속범죄 역시 30대 여성은 94%가 심각하다고 답해, 동년배 남성(52%) 대비 42%포인트 높다.

교통범죄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다. 18-29세(42%)와 30대(49%)는 10명 중 4~5명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반면, 60대(26%)와 70세 이상(24%)은 4명 중 1명 정도만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보다 모든 범죄 유형에서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다. 특히 강력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에서 20%포인트 안팎의 차이를 보인다.

18-29세·30대 여성 90% 이상이 불법촬영 등 풍속범죄 심각하다고 인식
연령대 낮을수록 교통범죄와 풍속범죄 '매우 심각하다' 인식도 높아

(단위 : %)

	사례수 (명)	지능범죄 (사기, 뇌물수수, 문서위조, 배임·횡령, 알선·수재, 청탁 등)		마약범죄		교통범죄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풍속범죄 (불법촬영, 음란물유포, 성착취물제작·배포, 도박 등)	
		매우 심각하다	매우+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매우+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매우+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매우+심각한 편이다
전체	(1,000)	40	84	41	82	35	80	35	78
성별									
남자	(494)	43	82	38	78	35	77	25	69
여자	(506)	38	85	43	85	35	83	46	88
연령별									
18-29세	(147)	44	87	32	78	42	89	43	81
30대	(151)	60	86	55	88	49	89	41	72
40대	(168)	43	84	41	78	43	79	41	80
50대	(192)	33	86	34	84	29	76	33	82
60대	(180)	38	78	43	82	26	75	28	78
70세 이상	(162)	27	81	38	82	24	76	28	78
성별 x 연령									
18-29세 남성	(75)	55	90	33	76	43	91	22	69
18-29세 여성	(72)	33	83	31	80	40	86	64	93
30대 남성	(79)	64	84	52	81	45	82	21	52
30대 여성	(72)	55	88	59	96	54	96	62	94
40대 남성	(86)	43	79	37	77	40	74	31	72
40대 여성	(82)	43	89	46	79	46	85	52	87
50대 남성	(97)	35	82	34	78	31	72	31	76
50대 여성	(95)	31	91	35	90	26	80	36	87
60대 남성	(88)	32	75	35	78	24	71	18	73
60대 여성	(92)	45	80	51	85	28	79	38	83
70세 이상 남성	(69)	34	82	42	80	27	73	25	72
70세 이상 여성	(93)	22	81	36	84	22	78	30	83
주관적 계층인식									
중상층	(325)	32	80	30	76	23	76	29	77
하층	(648)	44	86	45	85	41	82	38	79
주관적 이념성향									
진보층	(278)	31	77	35	75	27	73	35	77
중도층	(355)	43	89	36	83	38	85	34	79
보수층	(330)	45	83	49	85	38	80	36	78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412)	31	76	29	75	27	73	27	74
못하고 있다	(480)	50	91	52	90	42	88	43	83
모르겠다	(107)	31	80	32	72	33	71	35	78

질문: 발생 빈도, 피해 정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다음 각각의 범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8-29세 여성 82%가 강력범죄 심각하다고 인식… 동년배 남성 대비 2배 높아
강력·폭력범죄 심각성 인식의 성별 격차는 젊은 세대일수록 커

(단위 : %)

	사례수 (명)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등)		폭력범죄 (폭행·상해, 유괴·납치·감금, 공갈·협박 등)		절도범죄	
		매우 심각하다	매우+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매우+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매우+심각한 편이다
전체	(1,000)	28	71	22	67	13	49
성별							
남자	(494)	23	61	19	58	12	44
여자	(506)	33	81	25	75	13	53
연령별							
18-29세	(147)	32	61	22	58	10	42
30대	(151)	37	72	32	67	20	52
40대	(168)	31	72	23	63	16	49
50대	(192)	23	75	21	71	13	49
60대	(180)	25	70	16	69	9	47
70세 이상	(162)	22	75	19	72	7	53
성별 x 연령							
18-29세 남성	(75)	18	41	18	44	10	36
18-29세 여성	(72)	46	82	25	73	10	48
30대 남성	(79)	29	56	28	57	19	45
30대 여성	(72)	46	90	36	79	21	60
40대 남성	(86)	24	64	23	55	18	46
40대 여성	(82)	39	81	22	71	15	52
50대 남성	(97)	22	71	15	63	11	48
50대 여성	(95)	24	81	26	78	14	50
60대 남성	(88)	19	62	12	62	8	43
60대 여성	(92)	30	78	20	76	10	52
70세 이상 남성	(69)	26	70	16	69	7	47
70세 이상 여성	(93)	20	78	21	74	8	57
주관적 계층인식							
중상층	(325)	20	62	12	56	9	41
하층	(648)	32	75	26	72	14	52
주관적 이념성향							
진보층	(278)	21	65	15	58	3	36
중도층	(355)	29	72	23	69	15	53
보수층	(330)	31	74	25	69	18	52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412)	17	62	14	57	7	39
못하고 있다	(480)	39	81	30	77	19	59
모르겠다	(107)	23	63	13	59	5	41

질문: 발생 빈도, 피해 정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다음 각각의 범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범죄 소식 접촉 경로

최근 1년간 범죄 소식, 언론 보도로 접했다 95%, 온라인 콘텐츠 82%
직접 보거나 경험했다는 응답은 23%

범죄 소식을 어떤 경로로 접하는지를 물었다. 최근 1년간 뉴스 등 언론 보도로 범죄 소식을 접했다는 응답이 95%로 가장 많고 유튜브·SNS·커뮤니티 등 온라인 콘텐츠가 82%로 뒤를 잇는다(자주 접했다+종종 접했다 응답 기준). 가족·친구·지인 등 주변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응답은 44%,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직접 보거나 경험했다는 응답은 23%이다. '자주 접했다'는 응답만 보면 언론 48%, 온라인 36%, 주변 사람 10%, 직접 경험 5% 순이다. 사람들은 범죄를 직접 보기보다 대부분 미디어로 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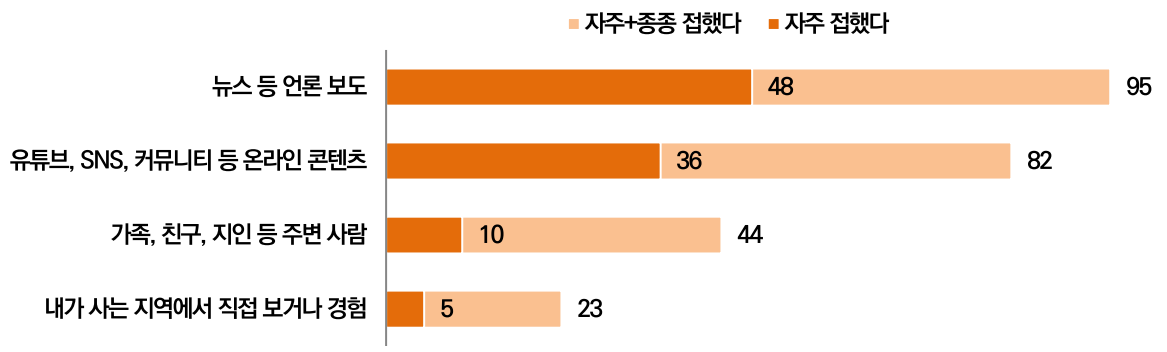
특히 젊은 여성의 접촉 빈도가 두드러지게 높다. 2·30대 여성은 40대 이상 여성, 그리고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서도 범죄 소식을 자주 접한다는 응답이 높다.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접촉도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크다. 18-29세의 62%가 온라인 콘텐츠로 범죄 소식을 자주 접했다고 답한 반면, 50대 이상은 4명 중 1명 정도만 그렇다고 답했다.

내가 사는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죄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범죄 소식을 더 자주 접했다. 특히 내가 사는 지역의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 중 47%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범죄를 직접 보거나 경험했다고 답해, 범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의 응답(17%)보다 세 배 이상 높다.

범죄 소식 접촉 빈도는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범죄가 늘었다는 응답은 보수층 61%, 진보층 32%로 크게 엇갈린다. 범죄 문제에 대한 이념 성향별 인식 차이는 범죄 소식을 얼마나 자주, 많이 접하는가보다는 같은 소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죄 소식, 언론 95%·온라인 82%로 접해… 사는 지역에서 직접 보거나 경험한 사람은 23%

(단위 : %)



질문: 최근 1년간, 다음 각각의 경로를 통해 범죄 사건 소식을 얼마나 자주 접하셨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0대 이하 여성, 언론·온라인·주변 사람 등 모든 경로에서 범죄 소식 자주 접했다는 응답 높아
거주 지역의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사람 중 47%는 지역에서 범죄를 직접 보거나 경험해

(단위 : %)

	사례수 (명)	뉴스 등 언론 보도		유튜브, SNS, 커뮤니티 등 온라인 콘텐츠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 사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직접 보거나 경험	
		자주 접했다	자주+종종 접했다	자주 접했다	자주+종종 접했다	자주 접했다	자주+종종 접했다	자주 접했다	자주+종종 접했다
전체	(1,000)	48	95	36	82	10	44	5	23
성별									
남자	(494)	45	94	32	82	6	39	4	20
여자	(506)	50	96	39	83	15	49	7	25
연령별									
18-29세	(147)	58	96	62	92	16	49	8	24
30대	(151)	56	96	46	92	16	51	11	32
40대	(168)	43	96	42	87	12	43	6	28
50대	(192)	44	93	24	77	8	39	5	20
60대	(180)	41	94	23	76	7	41	2	17
70세 이상	(162)	47	95	24	75	5	44	2	16
성별 x 연령									
남자_18-29세	(75)	50	96	53	92	10	40	7	17
여자_18-29세	(72)	67	97	70	93	23	58	9	32
남자_30대	(79)	53	97	33	89	8	39	8	23
여자_30대	(72)	59	94	61	96	24	63	14	41
남자_40대	(86)	39	93	36	85	7	35	3	27
여자_40대	(82)	47	99	49	88	17	51	8	29
남자_50대	(97)	46	94	24	77	5	35	4	18
여자_50대	(95)	42	93	24	76	11	42	6	22
남자_60대	(88)	34	92	24	74	1	40	1	16
여자_60대	(92)	47	96	22	77	13	42	3	18
남자_70세 이상	(69)	48	93	26	78	3	44	3	20
여자_70세 이상	(93)	46	97	22	72	7	43	1	13
주관적 이념성향									
진보층	(278)	50	95	34	80	9	39	3	16
중도층	(355)	47	96	36	82	11	48	6	28
보수층	(330)	46	95	36	85	10	45	6	23
정부 범죄 예방·관리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412)	44	93	32	79	9	38	4	18
못하고 있다	(480)	53	96	43	87	13	52	7	28
모르겠다	(107)	35	95	20	76	3	31	4	13
지역 범죄 문제 인식									
심각하다	(177)	60	93	51	87	25	65	14	47
심각하지 않다	(701)	46	96	34	82	8	40	4	17
모르겠다	(122)	37	93	25	77	5	34	3	18
우리나라 범죄 문제 인식									
심각하다	(689)	55	97	40	84	13	50	7	27
심각하지 않다	(266)	33	91	28	78	4	30	3	14
모르겠다	(45)	22	87	14	81	4	26	0	7

질문: 최근 1년간, 다음 각각의 경로를 통해 범죄 사건 소식을 얼마나 자주 접하셨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8. 7. ~ 10.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6년 7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4,548명, 조사참여 1,636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5%, 참여대비 61.1%)
조사일시	• 2026년 8월 7일 ~ 8월 10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